

교회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변화하고 있어요

릭 워렌 지음



백

교회는 위축되지 않습니다. 북반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문화의 상태를 둘러보고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다고 믿기가 쉬울 것입니다. 격려적인 현실은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위축되지 않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이미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이동했습니다. 지난 1,000년 동안 세계의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유럽이나 북미에 살았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북반구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세계의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적도 남쪽의 남반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양인들이 "우리는 기독교 이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점은 전 세계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그들의 지역에 대해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누군가가 우리가 기독교 이후 세계에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기독교의 성장에 대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이후로 세계 인구는 매년 약 1%의 비율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기독교 교회는 매년 2%의 비율로 성장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교회가 인구보다 100% 더 빨리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유럽과 북미의 일부 국가에서는 기독교가 쇠퇴하거나 적어도 침체되거나 정체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종족 중에서 다른 종족보다 더 빨리 성장하는 종족이 두 개 있습니다. 오순절파와 복음주의 교회는 모두 매년 4%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두 부분입니다.

그 두 그룹은 인구보다 4배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슬퍼하고 비통해하며 우리가 패배자라고 생각할 날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매년 인구보다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이 이동했기 때문에—남반구에 기독교인이 더 많기 때문에—Finishing the Task는 대부분의 기독교인이 있는 성장 지역의 리더가 이끌어야 합니다. 2033년까지 대명령을 향해 나아가려면 전 세계 모든 지역의 리더와 평신도, 교회의 모든 부분이 함께 나서야 합니다.

참여하시겠습니까?

수천 명의 신자, 교회, 교파, 조직이 함께 모여 대명령을 성취하기 위해 모이는 연합에 참여하세요. 과제 완수는 그리스도의 교회 전체를 동원하여 모든 사람과 모든 장소에서 모든 그리스도의 명령을 행하고, 모든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하여 2033년까지, 즉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시의 2000주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FinishingtheTask.com에서 시작하세요.